

<b>제목</b>	<b>중국정부, 실버경제와 연계한 소비 확대 논의*</b>
-----------	----------------------------------

※ 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노인층을 겨냥한 '실버경제'와 연계한 소비·서비스 확대를 위해 소비와 공급 양 측면에서 종합 패키지를 논의

\* 중국 국무원 산하의 최고 정책 조정·결정 회의체

### (상무회의 내용)

□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의 실버경제(银发经济)를 “잠재력이 매우 큰 새로운 성장 분야(潜力巨大的新增长领域)”로 규정하고, 노인복지(养老事业)와 노인산업(养老产业)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

#### ① 노인 소비확대 방안: 수요측

- 금번 정책은 실버계층의 소비수요(银发消费需求)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전통적 방식인 공급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인의 소비능력 제고를 위해 소비보조금(消费补贴)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
- 구체적으로는 노인 친화형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 보조금·쿠폰 등 지원, 문화·관광, 스마트헬스케어(智慧康养), 노인교육 등 신(新) 소비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경향·업태(新场景, 新业态)를 조성

#### ②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공급측

- 보편적(普惠)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의 품질 제고·범위 확대(提质扩面)를 요구하며, 도시·농촌을 포괄하는 다층·분류형(分级分类)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
- 장기요양, 커뮤니티 돌봄, 가정 돌봄, 의료-요양 연계 등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普惠可及, 覆盖城乡, 持续发展的养老服务体系) 체계를 구축

#### ③ 정책·제도 환경 정비

- 실버 경제와 노인 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 조치(支持举措)를 정비·보완하는 한편, 기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强化政策落实)함으로 실제 프로젝트와 산업에까지 전달되도록 지시
- 중앙 차원의 지침 외에도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행 방안과 재정·금융 지원, 표준·규범 제정 등을 통해 실버산업 생태계를 정비

## (종합 평가)

- 이번 상무회의는 기존의 복지 지출 중심의 노인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노인을 소비·인적자본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실버경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
- 단기적으로는 소비보조금 지급 및 새로운 소비경향 조성, 중기적으로는 보편적 노인서비스 체계 정비와 관련 산업 육성을 병행함으로써 **고령화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를 확충**하겠다는 전략
- 인구 고령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실버경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노후 보장과 새로운 내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중국의 중위연령<sup>■</sup>(median age)은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중국의 노동력 평균 연령도 1985년 약 32세에서 2023년 약 40세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

- 1980년대까지 20대 초반에 불과했으나 2020년대 초 약 38~40세 수준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2050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52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주요국 중위연령 추이

년도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세계 평균
1950	22.2	17.7	29.0	21.3	20.0	22.2
1960	19.9	18.3	28.3	24.7	19.2	21.5
1970	18.0	17.7	26.7	28.3	18.1	20.3
1980	20.9	20.9	29.1	31.7	18.9	21.5
1990	23.7	25.8	31.9	36.9	19.7	22.9
2000	29.0	30.7	34.3	40.8	21.2	25.1
2010	34.1	36.6	35.9	44.2	23.6	27.2
2020	37.5	42.8	37.2	47.7	27.0	29.6
2023	39.1	44.5	38.0	49.0	28.1	30.4
2030 <sup>°</sup>	42.9	48.5	39.6	51.5	30.8	32.0
2040 <sup>°</sup>	48.6	53.3	40.8	53.1	34.7	34.0
<b>2050<sup>°</sup></b>	<b>52.1</b>	<b>56.7</b>	<b>41.9</b>	<b>52.8</b>	<b>38.3</b>	<b>36.1</b>

자료 : UN, 2024